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Ⅳ)

— 이상한 U문자의 출현 —

항공우주연구소 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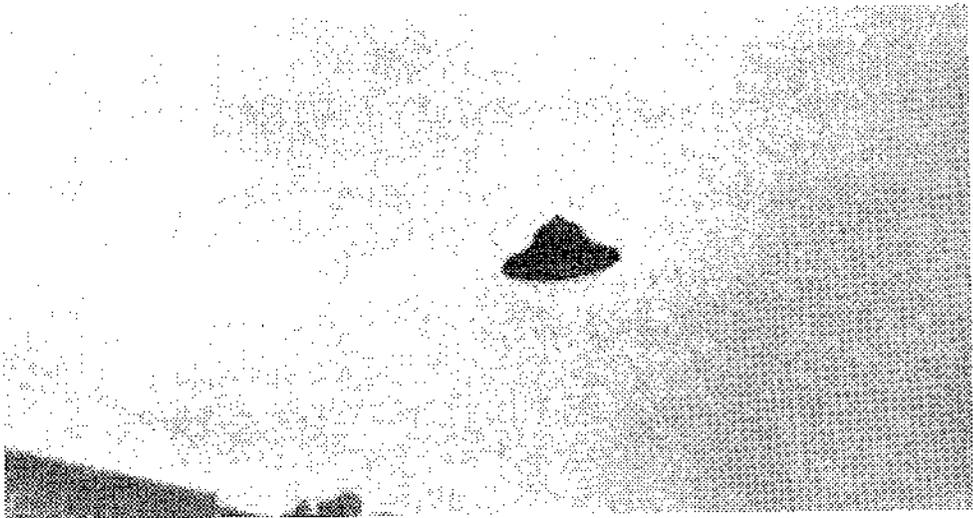
이하는 1992년 5월 30일에 가나가와현 도찌구보에서 개최되었던 일본 GAP 본부 주최 UFO 관측모임에 관한 자료이다.

UFO관측에는 쾌청한 날이 좋다.

두찌구보 지대는 해발 약 200M의 초원지대로 시가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방해받는 일은 없다. 단지 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발로 밟아서 평평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좁 일찍 현지에 도착한 임원 일동과 여러 명의 회원이 땅을 고르고 지대를 평평하게 했다. 1991년 5월 25일에 이곳에서 행해진 관측모임에서는 멋진 UFO가 출현했다. 회원 다니모도 히데오씨가 멋지게 촬영한 사진을 잘 조사해 보면 광채는 자전하면서 일직선으로 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비행기나 불덩어리 그 밖의 확인된 물체가 아니다. 급속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서도 인공위성도 아니다. 결국 UFO였던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좀더 굉장한 광경을 목격하려고 다수의 사람이 모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9일 저녁 무렵부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구름이 전면에 뒤덮여지고 푸른 하늘부분을 보기가 어려웠다. 필자가 과거에 수없이 실시한 UFO관측의 경험으로 봐서 하늘이 개어 있지 않으면 UFO를 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UFO(흔히 스카우트 쉽이라고 불리는 것은 원반형 우주선이나 엽권형 모선)역시도 구름 아래까지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UFO관측은 낮이건 밤이건 하늘이 개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구름 낀 하늘에서 UFO를 관측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이 비오는 하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는 전에 역수같이 내리는 빗속에서 투명 비닐 우산을 쓰고 여러 시간이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 것도

출현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후에는 비가 오는 경우에는 UFO 관측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의 유명한 유니스톤 비행접시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그러하다. 1954년 2월 15일 영국 랭커셔주의 유니스톤에서 당시 13세의 스티븐 더비셔 소년이 애덤스키형 비행접시를 촬영해서 유명해졌는데 이때의 비행접시는 구름사이를 초 저공으로 강하했던 것이다. 소년이 운 좋게 기다리고 있다가 코닥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영국과학자 레널드 크랩프가 정사영법(正射影法)으로 분석한 결과 애덤스키가 촬영한 금성의 비행접시와 똑같은 형이란 것이 증명되었다. 이 사진이 발표된 뒤에 소년은 논쟁과 비난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고 대단히 혼이 난 것 같다. 음화는 분실되고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 실존한다면 지금은 50대가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영국으로 건너가 본인에게 인터뷰를 시도해 보려고 계획하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주소를 조사해 봤지만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주소가 판명되어도 이제 표면에는 나서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는 1974년 10월 11일의 이른 아침 히로시마 현 오미찌시의 고등학생 후지마쓰 가즈히코군이 애덤스키형의 비행접시와 모션을 촬영한 경우와 같다.

〈그림-1〉 1974년 10월 11일 후지마쓰 가즈히코군이 촬영한 애덤스키형 UFO



수년 전 오랜만에 후지마쓰군에게 전화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가 받아서 이제 그 일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역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이

다. 필자도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났다. 여담이지만 후지마쓰 촬영사건으로 관동 지역에서 매스컴이 취재하러 구름같이 몰려들었지만 모두 매우 몰지각하고 방약무인한 태도였다고 한다. 필자가 조수와 함께 취재 차 방문했던 것은 소동의 마지막 무렵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에게서 취재자로서는 가장 신사적이고 정중하다는 말을 들었고 가족 모두에게 환대를 받았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현재 후지마쓰군은 회사원으로서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이런 생활을 침해하고 싶지는 않다.

텔레파시로 UFO를 부르는 일

도끼구보 관측모임은 저녁 6시 반부터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개회선언 후 필자가 인사말과 함께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관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흥미본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는 거의 성과가 없다. 물론 세상에는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다가 공중을 날고 있는 이상한 물체 즉 UFO를 목격했다고 하는 예도 흔히 있지만 우리들처럼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일정한 장소로 관측하러 가는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태도가 필요하다. 잘 알다시피 UFO(미확인 비행물체)는 지구의 것이 아니고 다른 혹성으로부터 날아 온 월등히 뛰어난 과학의 산물로서의 우주선이라고 우리들은 해석하고 있으며 또 그것에 타고 있는 인간도 정신적으로 지구인을 훨씬 능가하는 사람들로 특히 텔레파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지상에서 텔레파시로 부르면 그것은 반드시 상공의 UFO 탑승자에게 도달한다. 텔레파시는 실재하는 현상이고, 미국·러시아에서는 과학자가 옛날부터 이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명한 실험 예로서 1958년 여름 미국 원자력 잠수함 노티라스호를 이용해서 장대한 실험이 실시되었다. 미 정부의 위촉에 의해 매릴랜드주 프렌드쉽시 웨스텀하우스사의 특별 실험실에서 듀크 대학의 학생 스미스가 송신자가 되고 2000Km 떨어진 대서양의 심해에 잠행하고 있던 대형 원자력 잠수함 노티라스호의 함내에 있는 수신자 존스 해군 중위와의 사이에 텔레파시 송수신 실험을 시행했던 것이다. 16일간 주야에 걸쳐서 1일 2회씩 스미스가 이미지를 보내고 그것을 존스가 수신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실험은 극비리에 시행되었고 모든 작업은 철저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결과로서 적중확률 70퍼센트라는 높은 확률을 보였다. 우연에 따른 적중확률은 20%라 여겨지고 있는데 그 수치를 훨씬 상회한 것이었다. 이로써 인간이 방사한 상념파동의 실재가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통신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통신을 우연히 또는 고의적으로 수신하는 일이 있기 쉬운 전파를 대신할 최후의 통신수단으로서 미국과 러시아가 연구에 격전을 벌이는 결과가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일본 신수사 간행「생물학적 무선통신」, 백양사 간행「텔레파시의 세계」, 중앙아트출판사 간행「초능력 개발법」을 참조) 다만 아직까지는 텔레파시 현상의 실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학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는 어느 시대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옛날 후쿠라이 도모기찌 박사가 실험에 의해 인간의 상념파동의 실재를 증명한 결과, 도쿄 대학에서 쫓겨났다는 사건이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구 소련의 위대한 로켓 과학의 선구자였던 티오르코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머지 않아 우주비행의 시대가 오면, 인간의 텔레파시 능력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고 인류의 전반적인 진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와 당신은 정신적 형제 ... 다시 말해 사상적 동지-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33년 5월의 발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UFO 관측에서 상공을 향하여 텔레파시로 송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상념파동은 2,000km는 물론 다른 혹성, 다른 태양계, 다른 은하계에까지 한순간에 도달할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실의 과학에서는 아직 미해결 상태의 문제이다. 상공에 송신하는 경우, 필자의 텔레파시에 의한 호소 내용은 오래 전부터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적당한 말을 외치면 될 것이다. 그러나 「UFO여! 나타나라」라는 식의 건방진 말은 피하는 편이 좋다. 가능한 한 정중한 말로 외치기로 하자. 실제로 소리를 내어 외쳐도 되고, 또는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다. 어느 쪽이든 그 상념파동은 확실히 상공의 UFO에 도달할 것이다.

밤하늘의 일대 야외극

밤하늘을 관측하는 경우, 익숙한 사람과 초보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도구는 쌍안경, 카메라, 방위자석, 전등, 추운 날이라면 방한도구, 수첩, 필기도구 등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는 온도계, 고도계, 그 밖의 것을 합쳐 7가지 도구를 가지고 간다. 훨씬 이전 시즈오카 현에서 매달 1회, 필자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야간에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다년간 UFO 관측을 계속 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필자는 겨울 산행에 필요한 방한도구 일체를 큰 가방에 넣어서, 언제나 일본 GAP 이즈 지부대표 다카나시씨의 집에 맡겨 놓고 있었다. 필자는 혼자서 전차로 마시마 역까지 가서 상당히 장시간 관측하는 것이 보통인데, 가끔은 굉장한 광경

을 목격하곤 했다. 어떤 때에는 밤하늘에 많은 UFO가 출현해서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마치 우주의 불꽃 대회라고 할 만한 장관을 보인 적도 있었다. 이것이 한창 일 때 한 대의 오렌지색 비행접시가 지상부근으로부터 수직으로 불뚱을 내뿜으며 상승한 일도 있었다. 그 때는 '슛'이라는 소리까지 들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놀라운 광경은 필자가 최초 애덤스키 전집을 출판하기로 결심한 이틀 뒤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우주인(외계인)이 축복의 의미로 밤하늘에 일대 야외극을 전개한 것은 아닐까 하고 나중에 서로 이야기했다. 대체로 필자는 어릴 때부터 신변에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했었다. 1935년,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어느 밤, 시골 우리 집의 뒤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근처의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돌연히, 산 중턱에 거대한 원형의 빛이 내리쬐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 빛의 원은 직경 약 50m이고, 원의 윤곽이 대단히 선명했으며, 빛을 받은 부분의 산중턱은 낮처럼 밝아졌다. 어린 마음에 이것은 앞 바다에 온 군함으로부터 방사된 탐조등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앞 바다의 군함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로부터 산까지는 적어도 1만 5천m이다. 당시 탐조등의 조명거리는 최대 1만 4천m이고 만일 탐조등 빛이 도달했다고 해도 윤곽은 상당히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게다가, 무슨 목적으로 육지의 산을 한순간만 비출 필요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이 산은 해발 백 수십 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이 지상에 상당한 돌출물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날카롭고 둥근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지금이라면 상공의 비행접시로부터의 강렬한 탐조등이라는 것이 머리 속에 떠오르지만 당시로는 UFO에 관한 일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상공으로부터의 텔레파시도 포착한다.

우리는 모두 관측태세에 들어갔다. 관측 때의 자세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어쨌든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로해지지 않는 자세가 좋다. 조립식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반듯이 누워 위를 쳐다보며 뒹굴어도 좋다. 이것은 결코 예의 없는 모습이 아니다. 옛날부터 집단으로 UFO관측을 시행하는 경우 똑바로 선 자세로 많은 사람이 양손을 이어 잡아 원형을 만들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자주 시행되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 방법은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어떤 자세이든 진지하게 남이 보기에는 우습더라도 자기만은 진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텔레파시로 송신하는 것은 물론, 상공의 UFO로부터 보내오는 텔레파시를 수

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출현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이 장소는 부적당하므로 어느 어느 장소로 이동하세요』라고 등의 텔레파시가 오는 일이 있으므로, 그것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밤 하늘을 나는 물체를 비행기, 기구, 인공위성, 별, 새, 야광충, 그 밖의 확인물체와 식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짧은 시일로는 식별력을 기를 수 없으나, 익숙해지면 점차로 알 수 있게 된다. 지주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구름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정지해 있는 별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UFO가 출현

현지에서 5시경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는데 7시경에는 상당히 많은 구름이 몰려왔다. 어떻게든 우리 머리 위만이라도 구름을 흩어지게 하여 별이 보이도록 하려고, 필자는 열심히 구름을 향하여 구름이 흩어지기를 원하는 강렬한 상념을 방사했다. 구름 역시 의식을 가진 살아 있는 물체이다. 만물에는 모두 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과학 사상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애덤스키 철학의 중심사상이다. 이쪽의 염력(念力)이 강력하면 구름도 당연히 흩어진다. 미국의 대 초능력자 테드·오웬은 대폭풍우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또한 구름을 흩어지게 하는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머리 위만은 웬지 모르게 구름이 걷혀서 약간 푸른 하늘이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7시 넘어 늦게 온 사또씨와 나가야마씨 두 사람이 이곳으로 오는 도중 동쪽 하늘에 초록 빛 광체가 크게 떠올라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UFO목격이 되었던 것이다. 7시를 지나 6분쯤에 돌연 전방에서 시미즈마사시군의 『상공에 UFO가 오른쪽으로 날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쌍안경을 들고 보니, 틀림없이 작은 광체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대단한 속도를 내며 이동하고 있었다. 점멸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로 봐서 절대 비행기는 아니었다. 필자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줬지만 육안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은 없었다. 보인 시간은 약 20초 정도였다. 나중에 들은 것이지만 필자의 바로 뒤에 있었던 다나카쥬씨도 봤다고 한다. 그 미약한 광체를 육안으로 봤다니 대단히 좋은 시력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전원이 목격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좀 흥이 나

지 않는 분위기였다. 작년과 같은 멋진 목격사건은 발생하지 않을까 하며 눈을 부릅뜨고 하늘 전체를 둘러보았다. 대지는 바람 없이 따뜻하고 쾌적한 밤이었다. 우리는 거대한 모션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며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U자가 나타났다!

8시 55분 경, 이상한 광경이 전개되었다. 필자 바로 옆에 사또씨와 나가야마, 그리고 동료인 시노자끼노리코씨 세 사람이 서 있었는데 시노자끼씨가 갑자기 뒤 돌아보며 『저기, U자가 보여요!』라고 했다. 쳐다보니 북동 방향의 짙은 숲 상공에 거대한 「U」문자가 번쩍 번쩍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명료한 문자였기 때문에 놀란 나머지 한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윽고 큰소리로 동쪽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일행 모두는 그 방향을 돌아다보았지만 그 때는 이미 문자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U」라는 문자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U」문자가 가장 선명히 보였던 것은 불과 찰나의 일이었다고 그것을 확실히 본 것은 세 명의 여성과 필자, 그리고 우측에서 함께 본 호리에겐이찌군 다섯명 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모든 사람이 놀라는 큰 사건이 되지는 못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필자의 왼쪽 옆에서 얼굴을 뒤로 젖히고 위를 바라보고 있던 다카나시씨도 UFO를 혼자서 목격한 것 같지만, 필자는 그 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대체로, UFO 관측에 초보적인 사람은 애덤스키 형

〈그림-2〉



비행접시 바로 그 것이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분명한 형태의 UFO를 목격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밤하늘에서는 대개 UFO가 단순한 광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커 봤자 기껏해야 빛나는 공으로 보이는 정도이다.

그러나 광채 뿐만 아니라, 실은 여러 가지 문자나 기호인 듯한 것도 출현하기도 한다. 꽤 오래 전에 우편물을 간다 우체국에서 전국으로 발송하기 위해 엔도 아끼 노리씨가 운전하는 차로 구라마에바시 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사쿠사바시 부근에서 갑자기 전방 하늘에 「역U」자가 출현한 일이 있다. 다시 말해서「∩」모양의 세로로 긴 하얗고 멋진 선이 창공에 보였던 것이다. 제트기가 역U 자를 그리듯이 비행한 것이라면 지상에 격돌 할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것은 우주인으로부터 축복의 기호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낮이건 밤이건 공중에 나타나는 것은 UFO뿐만이 아니고 특수한 기호가 어떤 형태를 띠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 역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주인은 현실의 인간

UFO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UFO를 자주 목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카르마의 차이점 또는 민감성의 정도, 특히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감수성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때문인 것 같다. 또한 UFO 측의 배려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5~6명이 같은 장소에 있고 UFO가 출현하는 경우, 세 명이나 네 명에게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이것은 UFO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 쉬운지 불신론자 인지를 고려한 결과이다. 애덤스키에 의하면 우주인은 지구인의 성격이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다고 하므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서 일부러 보이지 않도록 특수한 조작을 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지구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과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광선 조작은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그들의 우주선을 순간적으로 없앨 수도 있다. 이 경우 우주선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광선을 조작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UFO가 아니고 인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상의 누군가의 눈앞에 있던 우주인이 순간적으로 모습을 감추는 일도 있다. 현실적으로 육체가 살아 존재하고 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과학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심령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UFO 문제에 관한 한 소위 심령 분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주인은 필자가 아는 한 육체를 가진 현실의 살아있는 인간이며 외관상으로는 지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시애틀 공항에서 도움을 받다.

1979년 일본 GAP의 해외연수 여행에서 미국과 과테말라에 간 적이 있다. 이때는 전체 인원이 약 60명에 달했기 때문에 전원이 같은 비행기에 탈 수 없었으므로, 2조로 나누어서 앞뒤로 출발했다. 필자는 후발조를 인솔했으며 먼저 미 서부해안의 시애틀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로스엔젤레스 행 비행기로 갈아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공항 세관의 짐 검사가 매우 엄격해서 일행은 좀처럼 나오지 못했다. 조를 수행·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필자는 수속 문제도 있고 해서 제일 먼저 세관을 나와 조바심을 내며 에스컬레이터를 혼자서 올라갔다. 지정된 2번 출입구 쪽을 멀리서 쳐다보니 출발 시간은 이미 지났고 손님은 겨우 세명이 서 있을 뿐이었다. 비행기가 떠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한 생각으로 2번 출입구를 바라보았다. 실제로는 이미 등록된 30명이나 되는 단체여행객을 태우지 않고 남겨둔 채 비행기가 떠날 수는 없는데 이 때는 마음이 산란해져서 시애틀에서 노숙을 할까라는 상념까지 아른거렸다. 넓은 플로어를 가로질러서 출입구로 향하자 앞에 발한 두명의 신사는 멀리서부터 필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옆에까지 다가가서 갈색 양복을 입은, 키가 큰 백인 신사에게 “비행기가 벌써 떠났습니까?” 하고 묻자, 신사는 조용히 영국식 영어로 대답했다. 「아니요, 비행기는 아직 밖에 있습니다. 이 출입구 담당자는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15분 정도 있으면 이 쪽으로 돌아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폭탄투하”(이것은 필자가 소속되어 있던 옛날 육군 항공대의 용어로, 억누르고 있던 것을 야외에서 단숨에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를 한 것 같은 안도감과 함께,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정확히 15분이 경과 한 뒤에 담당자가 돌아왔다. 신사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항공 회사 관계자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두사람이 실은 우주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확실히 알았다. 수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반의 도시인 티베리아스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순간 그 여자가 우주인이라는 것을 필자가 알아챘다. 백인이지만 머리는 검었다. 상대는 외면하면서 스치듯 지나갔다. 함께 걷고 있던 여러 명의 동료는 알아채지 못했다. 필자는 아무 말 없이

호텔로 돌아왔다. 우주인은 필자가 나중에 이 일을 모두에게 이야기 할 것을 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면한 것 같다. 용모나 특징을 기억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의 화신(化身)이지만 혼이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구인을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면이 있다.

대국의 정보조작

도대체 우주인이라는 "인간" 이 존재하는 걸까? 다른 혹성에서 왔다고 하여도 우리의 태양계는 지구이외의 혹성에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탐사선 등의 과학적 조사로 입증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러시아의 혹성탐사선을 통해 특히 소련의 베네라 9·10호의 탐사로 금성의 실체가 판명되었다. 물론, 정보가 있는 그대로 공포될 리는 없다. 은폐를 거듭해서 비밀의 베일 속에 끌려 감춰져 왔다. 이렇게 해서 표면으로는 「과학」의 이름 아래 정보공작이 행해지고 온 세계의 사람이 「과학」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완전히 믿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말은 신(神)인 동시에 악마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무기로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측모임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당초에는 9시까지의 예정을 다시 10시까지로 연장했지만 결국 눈에 뵈만한 UFO의 출현은 없었고 마침내 폐회하기로 하였다.

애덤스키 문제와 일본 GAP

1995년 9월 8일 부터 10일 까지 3일간, 미국 워싱턴 시에서 로체스터 UFO연구회 주최의 애덤스키 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최자는 애덤스키의 친구였던 빌 샤우드씨 였다. (정식 명칭은 Friends of Adamski Conference) 이 대회에서 애덤스키 생존 중에 그와 협력했던 친구, 각국 GAP 주재자 등 총 9명이 3일간에 걸쳐 각자가 연구결과와 활동상황을 강연을 통해 피력하였다. 또한 물려 든 많은 청중의 열의와 함께 일본 GAP 회장인 구보다 하찌로씨가 아시아 대표로서 9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등단했다. 강연 한 시간과 슬라이드 약 60점의 영사 및 이에 대한 설명을 한 시간 정도해서 총 두 시간을 영어로 열변을 토하고 큰 갈채를 받았으며 청중에게도 많은 감명을 주었다. 이하는 강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애덤스키를 만나지 않은 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일본 GAP의 구보다 하찌로입니다. 오늘 이 멋진 대회에 초대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최자이신 로체스터 UFO 연구회의 윌리엄 샤우드씨는 저와 수십 년간, 편지를 주고받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보다도 10년 연상이신데 의외로 젊게 보이는 것에 놀라는 바입니다. 그는 애덤스키의 생존 중에는 애덤스키와 자주 만났지만 저는 애덤스키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샤우드씨를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다년에 걸쳐서 애덤스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저에게 제공했습니다. 그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덤스키의 책에 경악

제가 애덤스키의 책과 처음 만난 것은 1953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의 시마네 현의 마즈다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서점에서 애덤스키의 Flying Saucers Have Landed의 일본어판을 발견하고 무심코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952년 11월 20일에 캘리포니아 주 사막 센터에서 금성에서 온 비행접시가 눈앞에 착륙했고 그 곳에서 금성인과 접촉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은 사실 그대로 써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UFO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웬지 애덤스키의 책에 끌렸습니다.

진실한 사람, 애덤스키

그래서 다음해에 애덤스키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좀처럼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잊혀지고 있을 무렵인 반년 후에 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정중한 글이어서 저는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하고 그 이후 그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동안 그가 두 번째의 책인 Inside The Space Ships를 펴냈고 그것을 저에게 한 권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어로 번역하려고 결심하고 애덤스키의 허가를 얻어서 1963년에 그 책의 일본어판을 「비행 접시 동승기」라고 제목을 붙여 도쿄의 어느 출판사에서 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대단한 화제가 되었고 일본의 UFO 연구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저는 애덤스키 책의 번역서를 계속해서 펴내고 있었으

며, 한편으로는 애덤스키와 계속 편지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애덤스키는 절대로 진실

그리고 1961년에는 그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일본 GAP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수의 편지를 통해 저에게 우주적 인간이 되기 위한 지침을 주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인이며 또 금세기에 있어서 최대의 위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덤스키의 체험이나 언동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기가 되어 그가 말한 것처럼 태양계의 모든 혹성에 위대한 진화를 이룬 인간이 거주하고 대 문명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서 지구인에게 인정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확증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불신론자나 회의론 자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분명히 우주시대로 전진하고 있으므로 저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중략)

광신적이 되지 않는 우리

또 우리는 애덤스키 문제에 관해서 결코 광신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식이 풍부한 신사 숙녀 집단으로서 예의 바른 언동을 하며 사회와 잘 조화해서 활동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덤스키 문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격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믿는 것만으로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법칙입니다. 현재 애덤스키는 일반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만인의 존경의 대상이 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밝다

애덤스키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그의 책이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UFO 연구가 다니엘 로스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께 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로체스터 UFO 연구회 주재자인 윌리엄 샤우드도 나이를 초월해서 활동을 계속하

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도 미국의 UFO 연구계를 위해서 상당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전진

우리는 현재 애덤스키 문제가 일반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은 희망에 가득 찬 상념과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UFO 연구계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런 현상이 영구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구 사회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밝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